

겐로쿠 8년(1695년) 7월 야부하라주쿠기 거의 다 소실되는 큰 화재가 있었다. 이후 역참 재건 시 방화 대책으로 집마다 1칸(약 1.8m) 당 약 3cm의 비울로 공간을 제공해 가미요코미즈와 시모요코미즈(현재의 후타마타)라는 두 곳에 넓은 교차로를 조성했다.

분카 연간(1804~1818년)에는 새롭게 중심가의 화재에 대비하여 가미요코미즈의 대로 북쪽에 흙을 모아 돌담을 쌓고서 그 위에 높은 토담을 세워 방화벽을 만들었다. 당시 이를 ‘다카베이(高塀)’라고 불렀다.

미야타 빈의 ‘소조쿠이치구(峯俗一隅)’에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실려 있는데 현재 돌담의 일부가 남아있다.

소화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역참 모두 화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, 그 예로 용수로를 정비하고 건물에 우다쓰(卯建, 지붕 방화벽)를 설치하거나 화재 방지를 위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대비를 했다.

이곳 야부하라주쿠와 같이 높은 방화 토담을 이용한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.